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의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재구성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태지호* · 황인성**

본 논문의 목적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사례연구를 통해 탈북 여성의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억’이 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기억’과 ‘역사’의 갈등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집단지억’과 ‘문화적 기억’ 개념, 그리고 ‘기억’의 ‘사회적’ 속성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텔레비전 토크쇼를 ‘기억의 터’ 개념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분석방법론으로는 서사론적인 기정에 입각하여 통합체와 계열체 두 차원에서 행하는 구조적 텍스트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논의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탈북 여성들이 드러낸 과거 기억들은 이념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상사적인 관심거리 중심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과 갈등적 관계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들의 기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 유지에 기여한다.

주제어: 사적 기억, 공적 기억, 집단기억, 문화적 기억, 역사, 기억의 터, 텔레비전 토크쇼, 탈북자

1. 서론 및 문제제기

북한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적어도 한국 전쟁이라는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가능하기에 북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역사적 공간’이다. 하지만, 종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일반인이 북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대중매체와 같은 매개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텔레비전을 통해 ‘탈북자’들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북한 이야기들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현실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들이 자신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은 때로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에서 탈북여성들이 개인적인 회상과 증언을 통해 제시하는 북한에 대한 기억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그러한 기억들이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과 어떻게 충돌하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 주민의 탈북이 19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¹⁾ 한편, 이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겸임교수 (tae7675@hanmail.net), 주저자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inwhang@sogang.ac.kr), 교신저자

1)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총 641명이었으나, 1994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그 누계가 2000년에는 1,406명 그리고 2010년에는 20,000명을 넘어섰다. (2012년 10월

차원의 정책이 계속 이어지곤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물론, 일반인들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많아졌지만 그렇게 습득된 정보들이 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흔히 IMF사태로 알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이후 우리의 텔레비전 문화의 변화내지 양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타블로이드화(tabloidiz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 기술의 발전은 대중매체 영역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 전반을 잠식하면서 ‘타블로이드 문화(tabloid culture)’²⁾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 문화의 타블로이드화는 소위 ‘스펙터클 사회’의 도래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가피한 산업적 선택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동시대 수용자들의 취향내지 선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문화 또한 이러한 양상을 비껴갈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문화 구성 요소이다. 미디어 문화의 타블로이드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수용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사회적 의식내지는 ‘진지함’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일 것이다. 부연하자면, 미디어가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대함에 있어 ‘가벼움’으로 ‘진지함’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러한 사안들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증발하고 단지 오락거리로만 남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탈북 또는 탈북자들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작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일별해보면 이들이 주로 과편화된 정보나 볼거리 등에 기대어 단순히 집단 관음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타블로이드적 성향을 드러냄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홀(Hall, 1996) 등의 미디어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미디어를 통한 현실 재현은 현실을 단순히 ‘다시 보여주는 것(re-presenta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의미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가지도록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현실의 의미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기억이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재현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는 기억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특별한 구성과 의도에 의해 의미를 갖추게 되는 탈북자들의 회상과 증언이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중적인 기억을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한국의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특정한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탈북자 개인들의 사적인 기억일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재현의 과정을 거치는 순간 그들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기억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탈북자들의 북한에 대한 회상과 증언에 대한 논의는 그들의 개인사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의 문제와 연계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회상과 증언이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 개인들의 사적인 기억들이 텔레비전이라는 공적인 체도를 통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3%88%EB%B6%81%EC%9E%90> 참조.

2) 타블로이드 문화의 양상, 제작, 소비 등에 관해서는 Biressi & Nunn(eds.)(2008)을 참조할 것.

2. 이론적 배경

1) ‘기억’과 ‘역사’, 그리고 기억의 사회학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생각해 내는 행위이다. 역사 또한 과거와 관계하며 이를 참조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마찬가지로 수행으로 볼 수 있다.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인식론적인 그리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훗날 역사를 일종의 담론구성체로 간주하는 논의들은 역사란 특정 시·공간과 가치에 근거한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과 과거 또한 기억과 망각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다는 관점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역사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위기는 ‘기억’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Ankersmit, 2006; Carr, 1986; Hutton, 1993; Kramer, 1989; Lotman, 1990; White, 1979).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구술사, 생애사, 여성사, 사회사, 미사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역사 연구 영역에서는 ‘기억’이 주요 연구 수단이자 소재로 활용되곤 한다. 특히 구술사와 생애사 등과 같이 기억과 역사에 대한 기존의 분류 방식을 해체하는 관점은 ‘개인의 역사’를 요구하는 사적 기억들을 전면에 드러내왔다(Nora, 1989: 15). 이와 더불어 최근의 ‘기억의 유행(memory boom)’, ‘기억 산업’ 그리고 ‘역사/기억의 혼돈(history/memory puzzle)’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념들은 기억의 차원에서 역사를 논의할 것을 강조하곤 한다(Blight, 2009, pp. 240~241). 그리고 최근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 저장, 회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Bal, 1999; Connerton, 1990; Cubitt, 2007; Halbwachs, 1992; Olick, 2007; Robins, 1995; 김기봉, 2006). 특히 기억은 내면화된 행위, 즉 회상 이미지로 사건이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며, 사적 기억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의해 재구성된다. 소위 구술사 및 생애사 등과 연관된 증언 및 회상과 같은 사적 기억들은 종종 그 사회의 특정 지배 기억이나 공식 기억에 대한 저항적 관점에서 논의되곤 하나, 그래도 그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회상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현재의 맥락이 능동적으로 개입됨으로써 가능한 기억 방법(A. Assmann, 1999: pp. 34~35)이기 때문인 것이다. 기억은 비록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그 대상을 ‘불러내는(recall)’ 제도적 수행과 같은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적 기억 또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그 내용이 선별되고, 사회적 가치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언어로 제시되어 새로운 기억을 생산하는 문화적 실천이라 하겠다(Suleiman, 2006; Vansina, 1980; 권귀숙, 2006).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사회적 전유 과정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주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박스(M. Halbwachs)는 일찍이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을 통해 기억의 사회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기억은 사회적 과정이며 기억의 주체는 개인일지라도, 그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Olick, 2007, pp.18~19; 윤미애, 2002, 41쪽). 따라서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기억이 일정한

사회적 틀(framework)을 매개로 구성되며, 각 기억들은 ‘사회 문화적 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재구성되고 조합되기도 함(A. Assmann, 1999, p.354; Halbwachs, 1992, p.39)을 가리킨다. ‘집단 기억’의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전진성(2005, 48~49쪽)의 정리에 의하면, 그것은 집단 내적으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동질적 정체성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한편, 집단 내적으로는 모든 차이를 평준화시켜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집단 구성원들을 그 틀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알박스는 ‘집단 기억’의 형성과 유지가 특히 특정 국가 기념관이나 기념 장소 등과 같은 상상적인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매개로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임을 지적한다.

한편, 아스만 부부(Jan Assmann & Aleida Assmann)의 ‘문화적 기억’ 개념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집단 기억’이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심리적인 법칙을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문화적 기억’은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매체와 정치에 의존해서 인공적으로 형성되는 ‘문화적 창조물’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코드화되고 조직되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것이다(Böhme, 2000, p.209; 김학이, 2005, 237쪽, 전진성, 2005, 51쪽). 따라서 ‘집단 기억’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문화적 기억’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아스만(J. Assmann, 1995)이 주장하듯이, “문화적 기억 개념은 각 시대 각 사회 특유의 재사용이 가능한 다수의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제의들(rituals)로 구성되며, 그 ‘배양(cultivation)’은 해당 사회의 자기 이미지(self-image)를 견고하게 하고 전달하는데(convey) 기여한다”(p. 132).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기억은 현재의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선택에 의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문화적 기억 관점에서 볼 때, 아스만(A. Assmann)이 지적하듯이, “생생하고 개인적인 기억에서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으로의 이행은 기억의 왜곡, 축소, 도구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에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2009, 15쪽).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기억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간과할 수 없다. 미디어는 사적 기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특정한 방식으로 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사적 기억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적 기억은 미디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며 그것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재구성된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문화적 재현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보다는 미디어의 ‘현실구성’이라는 사회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미디어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기억이 매개되는 방식을 규명하는데 기여한다(권귀숙, 2006, 23쪽, 전진성, 2005, 32~33쪽). 일련의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재현은 대중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나가서는 또 다른 관련 기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준거’ 혹은 ‘개요’가 되기도 하며, 장차 새로운 기억을 갖기 위한 선매개(premediation)로서 기능하게 된다(Erll, 2008, p.392).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의 문화적 재현은 대중들에 의해 공유되는 자원이며, 특정한 의미 지도를 제공해 주는 복잡한 의미망으로서 다른 가치들과 끊임없이 연대하거나 갈등하는 수많은 관념과 이미지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Edensor, 2002, p.338).

결국, 유념해야할 점은 미디어에 의한 기억의 재현을 통해서 지배적인 공적 기억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거나 강화되어 ‘역사’를 만들어나가지만, 동시에 그러한 공적 기억과 사적 기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와 기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기억들 간에 이루어지는 체계모니적 갈등 및 경합의 역동적 관계,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기억의 고착화 문제 등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기형, 2010; 진진성, 2005; 태지호, 2012; 황인성·강승묵, 2008). 덧붙여,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억의 복수성에 근거한 기억의 문화적 실천의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사적 기억으로서의 증언과 구술이 단지 감정적 혹은 주관적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2) ‘기억의 터’와 텔레비전 토크쇼

알박스의 ‘집단 기억’ 논의를 프랑스사에 적용하여 연구한 노라(Nora, 1984)의 ‘기억의 터(les lieux de mémoire, sites of memory)’ 개념은 미디어에 의한 기억의 재현과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억의 터’는 “환기력을 지니는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 행위와 기호, 또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을 총망라하는 개념들”(진진성, 2005, 57쪽)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서 특정 공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노라의 논의를 따르면, ‘기억의 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기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집단 기억의 힘이 미약해져서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기억은 오히려 유사 기억 혹은 잉여 기억 등과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재현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의 ‘기억의 터’ 개념은 이러한 기억의 부재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특히 노라는 기억과 관련해서 “흔적의 물질성, 기록의 즉시성, 이미지의 가시성”(Nora, 1989, p.13)을 필요로 하는 근대적 기억의 특성을 지적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사물, 장소, 행위, 기호 등에 나타나는 기억의 ‘재현성’에 대해 주목한다. 정리해보건대, 이러한 노라의 개념은 기억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그 내용을 정하는 일 혹은 외재적 상징의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며, 역사적 평가 자체를 당대의 시대정신과 권력 논리 등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Olick, 2007, p.298; 윤택림, 2006, 65쪽; 이용재, 2004, 337쪽).

이러한 관점에서, 텔레비전은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억의 터’일 것이다. 즉각성, 일상성, 주기성, 사회적 전파력, 공통의 경험에 대한 재생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이 과거의 사건 혹은 기억을 다루게 되면(하효숙·김균, 2010), 이는 기억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 내는 기제가 된다. 특히 텔레비전은 주장윤이 지적하듯이(2010, 95쪽), 사회적 이벤트를 극화하고 증언하며 정당화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공통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면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억의 터’로서 논의될 수 있는 텔레비전 장르로는 다큐멘터리, 역사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 외에 ‘토크쇼’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토크쇼는 대담 형식을

통해서 주로 사적인 경험을 소재로 하여 재미, 감동, 공감 등을 자아내기 위한 장르이다. 토크쇼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이 회상과 증언 혹은 고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출연자들의 회상과 증언이 참혹한 폭력 및 사건/사고 등과 같은 트라우마적 기억과 관련될 경우, 시청자들은 그 기억들과의 심리적 동일시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토크쇼는 일종의 상흔 치료 의식이 되곤 한다.³⁾ 또한 토크쇼는 진실성과 유용성이라는 명목아래 다양한 사적 기억들을 ‘토크’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공적 여론 형성의 담론적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사적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변형시키는 장(field)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Munson, 1993). 그러므로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회상과 증언의 소재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혹은 허용되는 사안들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Thornborrow, 1997, p.234).

그렇다면, 최근 텔레비전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토크쇼의 핵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한 ‘일상성’ 부각 현상이 종래의 엘리트 중심적인 텔레비전 문화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나가서 진정한 민주적 문화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작금의 변화 또한 항상 그렇듯이 지배 세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헤게모니적 ‘병합’의 일환으로 그칠 것인가? 이러한 텔레비전의 양가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이희은(2011)이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듯이, 오락성/정치성, 일상성/전문성, 개인/집단, 감성/이성, 특수성/보편성, 사적영역/공적영역 등의 대립적 가치문제들을 놓고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Livingston & Lunt, 1994; 김응숙, 2004; 이종수, 2008; Turner, 2010; 김수정, 2010; 이경숙·조경진, 2010) 사이에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토크쇼는 기억의 재현 과정에서 동반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기억의 터’가 된다. 이러한 ‘기억의 터’로서 토크쇼는 과거에 대한 사적 기억을 ‘진정한’ 기억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apparatus)로서 각 토크쇼만의 특정 포맷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우선 토크쇼는 개인적 문제 혹은 사회적 이슈를 토크의 주제로 삼으며, 이에 대한 회상과 증언은 소위 실제 ‘리얼리티’로 부각되어 허구가 아닌 실제 사실로 제시된다. 또한 토크쇼에는 증언자로서의 게스트 외에, 사회자와 청중들 모두 또 다른 내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개입한다. 게스트는 토크쇼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며, 특히 사회자는 이들 게스트들의 회상과 증언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경우에 따라 스튜디오 현장의 방청객이 또 하나의 내레이터 역을 맡기도 한다(Munson, 1993; Shattuc, 1997; 최인자, 2003). 또한 게스트의 증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혹은 각 토크쇼의 특성에 따른 보조 장치로서 영상 자료, 자막, 패널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요컨대, 사적 기억은 토크쇼라는 텔레비전 미디어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탈맥락화되며, 그에 따른 상업적 기억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토크쇼는 특별한 제작 포맷과 편성 패턴에 의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적 기억들을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갖는 공적 영역으로

3) 토크쇼는 대중의 참여 방식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론 프로그램인 논쟁 형식, 주로 실패를 이겨낸 후 성공담을 들려주는 로맨스 형식, 사적 고민의 고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제시를 보여주는 치료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Livingstone & Lunt, 1994). 이들 중 특히 로맨스 형식과 치료 형식의 토크쇼가 개인의 회상과 증언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억’이 프로그램의 내용이자 형식이 되는 경우이다.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억의 터’이며 대중적인 기억의 형성에 관여하는 기억 조직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논의에서는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가 어떻게 ‘기억의 터’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게스트들의 사적 기억들이 어떻게 전유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문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후 <이만갑>⁴⁾)는 2011년 12월 4일부터 매주 1회 방영되고 있다. 원래 20회까지는 이산가족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들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하는 퀴즈, 장기 자랑,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21회부터는 종전의 야외/현장 방송대신 탈북자들을 게스트로 출연시켜 스튜디오 녹화방송 포맷으로 진행되는 본격적인 토크쇼로 변경되었다. 게스트인 탈북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듯이 ‘미녀’ 탈북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17회와 18회에 이들 여성 탈북자들만으로 진행된 특집편이 있었는데, 이후 그 이전의 방송 포맷은 아예 폐지되고 현재는 그 특집편의 형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논의는 특히 쇼의 형식으로 방영된 특집 편 2개와 이후 변경된 포맷으로 방영된 21회부터 34회(2012년 7월 22일 분)까지 총 16편을 대상으로 함을 밝혀둔다.⁵⁾

본 논문이 <이만갑>을 논의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우선, 이 토크쇼는 탈북자들의 과거 회상과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탈북자들의 회상과 증언을 다루는 일부 다큐멘터리, 뉴스, 토크쇼 등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이만갑>처럼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인 목적 또는 특정 뉴스 아이템을 위해 제작되는 것들이다. 반면 <이만갑>은 종합편성 채널에서 매주 방영되는 정규 프로그램이며, 탈북자 한두 명이 아닌 10명에서 18명에 이르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고정 출연하는 최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게스트 출연진이 여성 탈북자들로만 구성된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특징 중 하나이다. 최근 국내에서 ‘클린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의 <LA 타임스(Los Angeles Times)>나 프랑스의 <리베라시옹(libération)>과 같은 일간지,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 등에서 특집 아이템으로 다루어지고 일본 NHK에서도 관심을 보여 제작 현장을 촬영하는 등 국내외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례 고찰을 통해 이 같은 탈북자들의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며 그 사회적,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탈북자들의 사적 기억으로서의 회상과 증언 내용이 토크쇼 <이만갑>을 통해 의미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공적 기억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증언을 통해 제시되는

4) <이만갑>이라는 줄임말은 토크쇼 진행자, 패널, 게스트는 물론이고 제작진과 시청자들, 언론 매체 등이 두루 쓰는 표현이다.

5) 기존의 포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교양’ 카테고리에 있었지만, 현재의 포맷으로 바뀐 이후로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적 기억의 사회적 전유 문제, 사적 기억과 공적 기억의 갈등 문제, 나아가 <이만갑>을 통해 재현되고 구성되는 기억의 사회적 효과 문제 등을 <이만갑> 서사 구성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및 절차

문학비평가이자 역사학자인 헤이든 화이트(White, 1981, p.2)의 논의에 의하면, ‘서사(narrative)’는 하나의 ‘메타코드(metacode)’로서 인간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보편적인 ‘초문화적(transcultural)’ 현상이다. 따라서 어떠한 문화물도 그것의 ‘서사성’을 거부하거나 그것의 ‘서사적인 능력(narrative capacity)’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의미 없는 문화물임을 자초하는 것이다. ‘서사’ 형식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는 낯선 경험들을 의미 있는 ‘문화’로 만들어나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찬들러가 지적하듯이(Chandler, 2002, pp.163~164), 그러한 서사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갖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만갑> 또한 하나의 서사물로서 이와 같은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하나의 서사 담론으로서의 <이만갑>에 대한 기호학적인 분석연구를 통해서 <이만갑>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탐색해본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체적인 그리고 계열체적인 두 차원에서 <이만갑>이 가지는 구조적 분석을 실시한 다음,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논의할 것이다.

우선, 통합체적인 차원의 분석을 위해서, <이만갑> 텍스트를 구성하는 탈북자들의 증언, 사회자의 언술, 기타 제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언술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구조화되어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는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결합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만갑>이 통합체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드러내며, 또한 어떻게 이를 봉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통합체적인 차원의 분석은 특히 특정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살펴보는데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만갑>의 사회자 및 패널들의 마무리 멘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사회자 및 패널들은 게스트로 출연하는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 내용에 대해 특정한 방식의 ‘서사적 종결(narrative closure)’, 즉 이야기의 마감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관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적 종결’ 개념이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은 이미 여러 관련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Fiske, 1987; Thwaites, Davis, & Mules, 1994; Webster, 1990; 황인성, 2004). 따라서 서사 전체의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자 및 패널들의 마무리 언술을 분석하여, 이들의 문제설정과 그 징후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이만갑>에 내포되어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합체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구조적인 의미는 <이만갑> 텍스트의 저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호배타적인 대립적 가치관과 맞물려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제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계열체적인 차원에서 <이만갑> 텍스트의 문제설정이 의존하고 있는 심층적 차원의 대립적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일 또한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탈북여성들의 회상과 증언 내용, 그리고 그들이 시각적으로 대상화되거나 타자화 되는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 통찰을 통해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이만갑>의 심층적 차원에서 작동하면서 표층적 차원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화 과정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사적인 기억이 어떻게 전유되어 특정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1) 탈북 여성들의 사적인 기억 남한 사회의 공적 기억의 경합

<이만갑>은 한 시간의 러닝 타임으로 진행되는데, 그 진행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오프닝 이후의 패널 혹은 특별 게스트를 소개한다. 이들은 ‘south 4’라 불리는 남성 연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새로 출연하는 탈북 여성을 소개한 후, 탈북 여성들의 장기자랑이 끝나면, 본격적인 탈북 여성들과 그날의 주제에 따른 ‘토크’가 진행된다. 여기까지는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며, 비교적 밝은 분위기로 진행된다. 이후 진행은 앞의 분위기와는 달리 숙연하고, 슬픔에 젖은 극적 분위기로 연출되는데, 여기서는 새로 출연한 탈북 여성이 준비해 온 ‘타임캡슐’에 담을 선물 소개와 함께 탈북 동기 및 여정과 관련된 사연을 듣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후 중간 광고가 이어진 뒤 토크쇼는 마무리 된다. <이만갑>의 ‘토크’는 크게 사회자, 패널, 탈북 여성 그리고 보충 자료로 나뉜다. 이에 대한 각 언술들을 회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만갑>의 회차별 서술자들의 주요 언술과 특징

	주제	사회자 및 패널	탈북 여성	기타	특징
17회	특별 편성	탈북자의 적응 염려. 탈북이전의 경제적 상황을 질문. 패널 중 한명은 ‘김정일 북방위원장’이라고 표현.	노출 패션에 대한 상반된 견해.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강조.	미국인 남자친구 출연.	탈북 여성들의 첫 출연.
18회	특별 편성	남한과 북한과의 놀이, 언어 등의 차이에 대한 질문.	북한에 대한 애국심도 있었기 때문에, 탈북 시 고민하였음. 마약의 보편화. 하나원의 교육 강조.	자막: ‘21세기에 과연 실화인가?’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 부각.
21회	탈북 여성이 고정출연하게 됨을 공지.	인트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탈북 여성에게 ‘춤’을 강요. 게임 후, 별칭으로 패널에게 ‘뽀뽀’시키기.	서양인을 본적이 없음. 북한에서의 과외 경험. 한국노래를 즐겨 부름(출신 지역에 따라 다름). 가정 폭력의 경험.	탈북 여성 증인 장면에서 다른 여성이 울고 있는 장면을 편집하여 삽입.	‘남남북녀’의 강조
22회	사랑과 결혼관	인트로: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남편’에 대한 호칭의 차이에 대한 질문. ‘남한 남자와 북한 남자’의 차이에 대한 질문. ‘남한 여자가 부러운 것은?’ ‘북한이 일등 신랑감은?’ 앞으로의 결혼 조건에 대한 질문 : 집(크기), 자동차, 거주 지역	낭만적이었던 첫사랑 회상. ‘성(性)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자책함.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탈북과정 중 중국에 머물던 시절이 더 힘들.	자막: 남북한차이에 대해서 ‘어색하다’고 표현.	주제는 사랑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물질적 가치에 대한 강조

23회	북한의 한국 드라마 열풍	<p>‘한국에서 놀라웠던 점은?’ ‘북한에는 드라마가 없어요?’ ‘나이트클럽에 기본적 있나요?’ ‘북한에서 성인영화 본적 있나요?’ ‘놀랍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굶주린 사람 같다고 나를 보고 놀린다.’</p>	<p>드라마 보다가 들켜서 탈북 결정함. 한국 드라마는 악역남자도 멋있음. ‘한국 여성들은 배가 불렀다.’ 한국 남자들은 자상하다. 운전하는 한국 여성이 부러워서 탈북 결정함.</p>	<p>영상: 북한에서 제작된 드라마</p>	<p>사회자의 탈북 여성들의 외모를 통한 서열화 주장.</p>
24회	북한 상위 1%의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성형수술, 북한의 미인으로 주제가 바뀜.	<p>‘다리가 예쁘세요?’ ‘북한은 부촌이 있는가?’ ‘북한도 성형수술을 하는가?’ ‘미인의 조건은?’ ‘못산다, 굶는다 하지만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네요’</p>	<p>집이 부유해서 어려움이 없었으나, 액세서리 착용이 어려워져서 탈북 결정함. ‘가난하다는 느낌은 없었으니 그냥 있었으면 편히 먹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꿈이 없었다.’ 돈은 있었으나 권력이 없어서 자유롭게 누릴 수 없어서 탈북 결정함.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들어보니 잘사는데 감사가 심해 탈북하거나, 못살아서 탈북하는 두 가지인 것 같다.’</p>	<p>영상: 상위1%의 조건 순위 리스트 자막: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지의 세계, 북한’</p>	<p>사회자 및 패널들에 의한 탈북 여성들의 경쟁 분위기 조성. 탈북 여성들 간의 북한에 대한 상이한 기억들.</p>
25회	북한의 미신	<p>‘(왜소한 패널을 보고) 탈북자 같아요’ ‘요가 해 보세요’ ‘북한에도 복권이 있는 것이 신기하다’ ‘작명소 있나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람 사는 곳’</p>	<p>탈북 후 하나원에서 외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 탈북하려고 ‘점’을 본 경험.</p>	<p>영상: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 미신 숭배 1위’</p>	<p>한국과 북한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확인 및 그 반복.</p>
26회	북한의 학교 교육	<p>‘(외국인 사회자) 탈북 여성들에게 질투를 느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 ‘(탈북 여성들에게 자아비판 재연을 요청한 후)신기하다, 살벌하다’</p>	<p>출신 계급차이 때문에, 결혼을 위해 탈북한 여성과 그 시누이가 출연함. 시누이의 경우, 탈북한 것이 억울하고, 북한에서의 꿈(좋은 학교, 직장, 자아실현)을 접고 왔다고 함.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임을 알고 있음. 북한의 졸업식 풍경이 좋다고 함.</p>	<p>영상과 자막: 북한의 ‘대중 율동 체조’를 보여주고, ‘의외로 감쪽하다’ 영상: 북한 교과서, ‘미국 놈 때리기’</p>	<p>탈북 여성들로 하여금 ‘자아비판’을 ‘코미디’로 재연토록 함.</p>
27회	하나원 생활과 남한 정착기	<p>‘처음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했을 때, 어땠어요?’ ‘애국가 불러 보세요’ ‘투표해서 지도자 뽑을 때 어땠나요?’ ‘하나원에서 성교육도 하나요?’ “‘이분’들의 하나원 이후의 정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착기를 듣고)재밌네요’ ‘(임대아파트 입주 얘기 듣고) 궁전 같았나요?’ “나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지 않는다” 손들어 보세요’</p>	<p>난민 출신과 가짜 여권을 만들어 온 것은 입국 절차가 다름을 강조 북한에서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로서 배움. 한국에서 처음 투표 시, ‘무서워서’ 기권했다고 함. 하나원에서 나온 후, 외롭고, 무서웠다고 함.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질문이 많아서 탈북자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의견과 유명한 지역 출신일 경우 밝히기도 한다는 의견. 탈북 시, 한국 대사관에서 거절당하기도 하였음. 중국에서 북한보다 더 거처처럼 살았다고 함.</p>	<p>L.A. 타임스에서 취재하러 스튜디오 방문. 자막: ‘추억의 하나원 오징어,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영상: 하나원 교육의 간략한 소개. 하나원 시절의 장기자랑 재연토록 함. (자막: 스튜디오는 흥분의 도가니).</p>	<p>하나원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고려되지 않고, 호기심과 흥미 위주의 ‘토크’가 진행.</p>

28회	북한의 직업 세계	<p>인트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신이 세습된다는 말에) 사람한테 “성분”이 뭐야. 열심히 일할 의무도 없잖아요. 꿈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지.’</p>	<p>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 표출. (북한에 계속 있었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영화배우 등이 나옴. 한국 직장에서 외래어를 몰라서 생긴 에피소드 소개.</p>	<p>자막:(북한)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힘든 나라. 영상: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 best 3. 북한의 다양한 직업들을 출연자들에게 재연토록 함</p>	<p>한국은 북한과 대비하여 ‘꿈’과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임을 강조</p>
29회	북한의 민간 요법	<p>‘놀던 언니들이 시집 잘 간다’ 탈북 여성들에게 ‘클럽 댄스’를 강요함. 아편 경험에 대한 질문. 특이한 것을 먹어본 경험에 대한 질문. 피부 비용법에 대한 질문.</p>	<p>북한에도 패션에 많이 신경 쓰는 이들이 있음. ‘무속’을 인정하지 않아서 탈북하였다고 함. 북한의 가정에는 대부분 아편이 있으며, 집 마당에서 키운 적도 있다고 증언. 눈썹문신(화장용)하려고 아편을 복용. 특이한 것을 먹어본 경험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강조.</p>	<p>영상: 북한 최고 민간요법 best 5. 민간요법에 대한 의학적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와의 인터뷰 영상.</p>	<p>탈북 여성들은 추억과 향수로서 증언한 반면, 사회자와 패널들은 놀라움과 생소함으로 반응.</p>
30회	6·25특집: 북한 고향 음식 자랑	<p>인트로: 민족의 비극 6·25 전쟁 62주년입니다. (‘한반도 그림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인구 1억에 가까워지고요 러시아, 중국을 기차타고 갑니다. 진짜 통일되어야 해요.’ ‘스키장도 있네, 장비도 있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 합창 강요</p>	<p>‘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곳이기 애 아오지같이 살기 힘든 그 땅마저도,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워지고 먹먹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고향 자랑 : 특산물, 명소, 음식, 어원 등-추억이 강조됨. 합창하며, 모두 슬퍼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 고향 음식 소개.</p>	<p>합창 후, 모두 슬퍼하며, 녹화가 중단되고, 그 슬퍼하는 장면이 편집되어 방송. 영상: 실향민의 고향 회상.</p>	<p>‘탈북 스토리’가 편성되지 않음.</p>
31회	탈북 미녀 가족 특집	<p>어떤 점이 북한 사람 같은지 남한 출신 가족들에게 질문.</p>	<p>북한에서도 ‘미’를 위해 성형한다고 소개. 고향인 ‘아오지’ 관련 일화를 콩트 형식으로 회상. ‘북한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줘서 감사합니다.’</p>	<p>해외 언론의 <이만갑> 소개 영상: BBC</p>	<p>너그럽고 포용할 줄 아는 한국을 강조</p>
32회	북한의 ‘신기한’ 텔레비전	<p>(‘경연대회 관련하여’) ‘우리는’ 1등 하면 혜택이 많은데, ‘거기서’ 1등하면 뭐 주나요?’ ‘식당 광고를 너무 무섭게 하네요.’ ‘북한에 흑맥주도 있어요?’</p>	<p>탈북 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북한에서 왔다고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이후 학생들이 카메라로 찍고, (북한은 사람 잡아 먹냐고 물어보고 (실제 그건 자신도 모른다고 함) 해서 난처했다고 함. 이후 전화 가서 지금까지 탈북자라고 숨겨왔다고 함. 지금껏 본인이 숨긴 것을 밝히고자 출연을 결정함. 북한에 대한 증언에서 ‘우리나라’라고 표현.</p>	<p>영상: 각종 북한 방송 영상</p>	<p>북한에 대한 ‘신기한’을 부각함.</p>
33회	북한의 기념일	<p>‘북한에는 마네킹이 없나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예전 생각하면 어떤가요?’</p>	<p>한 출연자의 아버지는 북한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는데, 한국 TV 방송을 보고 탈북을 결심하였다고 함. 북한 과거를 보고 기뻐함.</p>	<p>자막: 세상에는 없는 북한에만 있는 기념일을 소개해드립니다. 추억의 맛에 젖은 탈북 미녀들</p>	<p>북한에서 온 과거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 탈북 여성들.</p>

34회	북한 스포츠의 모든 것	패널들이 콩트를 통해 출신 성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사실 유무 확인 질문. ‘북한이 외국하고 경기하면 우리는 북한 응원해요.’ (남북 단일팀 영상시청 후)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였어요.’ ‘한국 응원 봤을 때 어땠어요?’ 남북한 각각의 응원을 재연 요청. ‘(북한에 대한 충성의 증언을 들은 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요.’ ‘만약 김정일, 김정일 초상화와 여러분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북한에서는 남북단일팀 얘기 못 들었다고 증언.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유명한 선수도 있다고 증언. ‘(미녀 북한 응원여성 영상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고) 가식적이지만,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충성하는 어린이들 에피소드 소개 후) 나는 그 애들이 부러웠다.’ 탈북에 대한 기억에서, 한 출연자는 엄마가 ‘당원’이었음에도 삶이 힘들어 탈북함.	영상1: 북한의 스포츠 스타들. 영상2: 남북단일팀. 자막: 국민들에게 선물한 건 승리가 아닌 통일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Korea. 영상3: 남북단일팀 영화 ‘Korea’	북한에 대한 한국의 공적 기억과 탈북 여성의 사적 기억이 대립되지만,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공적기억으로의 편입을 부각 시킴.
-----	--------------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만갑>은 회차별 주제가 제시되고 사회자들의 질문에 탈북 여성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탈북 여성들의 장기 자랑, 각종 공연, 재연 행위, 게임, 선물 증정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사회자의 질문은 마치 취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혹은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는 듯 보이며, 영상과 자막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이만갑>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특징을 언급하자면 탈북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점과 이러한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는 이들의 개인적인 회상과 증언 내용이 북한의 삶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인식 방식과 종종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부연하자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사적인 ‘기억’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억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경합함으로써 때로는 우리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기억들 사이의 경합은 북한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회상하고 증언하는 에피소드들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이는 그들이 제공하는 이야기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이나 담론, 혹은 지식 등과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애국심(18회), ‘우연찮게’ 탈북한 사연(22, 24회), 북한의 성인 영화(24회), 성형 수술(24회), 학교 졸업식의 회상(26회), 북한 시절의 첫 사랑(26회), 한국 전쟁 시발 원인(26회), 패션(29회), 어린 시절 회상(29회), 고향에 대한 향수(30회), 북한의 과자(33회), 응원전(34회) 등을 다룬 에피소드들을 통해 이들이 제시한 북한에 대한 기억은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탈북 여성들은 실제 ‘민족’과 ‘통일’에 대한 기억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강조한다. 이는 실제 남한 내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작용하는 ‘집단 기억’내지 ‘문화적 기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색채와는 무관한 양상을 보인다. 가족에 대한 회상들은 탈북 과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탈북의 여정 속에서 겪은 고통을 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갑>은 항상 ‘민족’과 ‘통일’의 문제로 이들의 기억을 환원시킨다. 이들의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의 고통 및 트라우마가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이만갑>은 그 치유와 화해의 방법을 ‘민족’과 ‘통일’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아래 <표 2>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 전쟁’, ‘통일’, ‘휴전선’, ‘대한민국’ 등과 같은 거시적인 민족주의적

담론 개념 혹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연관된 공적 기억들을 강조하는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에서 잘 드러난다.⁶⁾ 이러한 마무리 멘트는 일종의 ‘서사적 종결’ 기능을 하는 요소로서 <이만갑>의 통합체적 차원의 서사구조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탈북 여성들은 국내에서의 ‘하나원’이나 ‘대사관’(17, 27회) 등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증언하고 있지만, 실제 <이만갑>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 없이 지나치는 모습을 보인다.⁷⁾ 또한 ‘토크’의 주제도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생활사, 미시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토크쇼의 마무리는 항상 거시적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적 기억은 결국 남한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의 틀 내로 병합됨으로써 침묵된다.

<표 2>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

17회	6.25전쟁이 끝난 지 62년,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회	북한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탈북한 것입니다. 국민의 염원이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1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죄스럽습니다.
22회	새로운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입니다. 조금씩 통일의 길을 열어나 갑시다.
23회	드라마를 보고 탈북 결심한 것이 놀랍습니다. 아무리 38선이 갈라놓아도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24회	당부컨대, 가감하지 말고, 보고 느낀 것을 앞으로도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는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25회	이분들이 이렇게 용기 내어 출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유를 위해, 탈출하는 제2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26회	62년의 시간이 외국인들보다 탈북자들을 더 낫게 했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27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반성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일상의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28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29회	누구보다도 당당한 남한의 국민으로서 태어나고 싶은 탈북자들을 향한 낯선 시선들이 평범해지길 바랍니다.
30회	압록강, 두만강이 62년을 기다린 실향민들에게도, 탈북자들에게도 고향이 그리우면 한걸음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회	단 한번만이라도, 탈북자, 실향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의 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32회	한국을 향해 오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33회	사과 하나, 밥 한술 소중히 감사히 먹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34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곧 시작됩니다. 누가 되시던 간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6) 특히 30회는 6.25의 62주년 기념 에피소드인데, 서두에서부터 줄곧 통일, 국력, 민족 등과 관련된 거시적 담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34회는 스포츠관련 주제에서 ‘남북단일팀’, ‘Korea’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7) 특히 ‘하나원’은 27회에서 큰 주제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자본주의’ 등을 어떻게 배우고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되며, 이를 통해 한국(인)과 북한(인)과의 차이만을 강조한다.

2) 낯선 ‘타자’로서의 북한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재현은 기억과 기억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식, 기억 주체, 기억 방식 등과 연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이만갑>은 탈북 여성의 북한에 대한 기억을 토크쇼로 재구성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현재의 지배 헤게모니적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기억을 강화한다. <이만갑>이 생산해내는 전반적인 대립적 가치 체계는 아래에 정리되었듯이 남한/북한, 우리/그들, 주체/대상, 문명/미개, 우월/열등, 정상/일탈 등을 포함하는 상동적 이항대립 구조로 요약된다.

남한	:	북한
우리	:	그들
주체	:	대상
정상	:	일탈
우월	:	열등
문명	:	미개
개방	:	폐쇄
익숙한	:	낯선
평범	:	신기
풍요	:	빈곤
자유	:	억압
현재	:	과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만갑>은 남한에 대한 북한과 탈북 여성들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한다. 사회자와 패널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특정한 인식론적 문제 설정을 통해 북한과 탈북 여성들을 정형화(stereotyping)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사적 기억들을 억압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만갑>은 기억의 주체인 탈북 여성들을 관음주의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응시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이러한 과정은 주로 남성 사회자의 질문하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개인적인 회상과 증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⁸⁾ 이때의 질문들은 북한 사회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남북한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인상(22회), 물질적 가치와 연관된 결혼관(22회), 외모 가꾸기/평가(22, 23, 24, 25회) 등과 관련되는 유형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결국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혹은 남성 중심적 인식의 틀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탈북 여성들은 장기자랑(22, 24, 25, 27, 31회), 노래 및 춤 경연(21, 28, 29, 32회), 남자 친구 및 패널들과의 스킨십 강요(17, 21, 28회), 노출이 많은 복장과 명찰의 착용(모든 회)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대상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의 카메라 작업은 틸트(tilt) 솟을 활용해서 탈북 여성들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관음증적 욕구충족 행위로 보인다. 결국, <이만갑>에서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 대한 기억 행위의 주체이기도

8) 사회자 및 패널은 주 사회자인 남성 1명, 보조 사회자인 여성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보조 사회자의 역할은 미비하며 주 사회자의 질문과 진행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패널 4명은 ‘south 4’라고 칭하며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종속되어 ‘보이는’ 타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⁹⁾

그리고 전술한 대립 가치들은 탈북 여성들의 파편화되고 유동적인 사적 기억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정박시키고 유형화하기 위한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 예컨대, 탈북 여성들의 기억은 대부분 탈북 과정이 힘든 과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자는 그 보다는 북한에서 생활하던 시절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그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를 반복한다. 즉 탈북 과정은 프로그램 후반부에 일종의 고백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눈물’로 무마되는 반면, 북한 시절에 대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사적(rhetorical) 반응 및 질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담론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탈북 여성들은 그들의 기억이 ‘사실’ 이거나 ‘현실’임을 재차 강조하는 반면, 사회자 및 패널 그리고 자막은 탈북 여성들의 기억에 대해서 ‘민지 못하겠다’거나, ‘비현실적’임을 뜻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실화예요?’, ‘진짜예요?’, ‘살벌하다’, ‘무섭다’, ‘진심으로?’, ‘알면 알수록 신기한 북한’,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힘든 나라’, ‘신기하다’, ‘충격적’, ‘재미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 ‘우스꽝스럽다’ 등 사회자 및 패널들의 의례적인 반응이나 자막을 통한 코멘트 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각 회차별 ‘토크’의 주제 또한 한국과 다름을 강조하는 이국적이고 신기한 북한에 대한 기억들을 강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이만갑>은 탈북 여성들 및 그들의 기억을 통해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지만, 동시에 동질성의 회복과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에 부응하도록 탈북 여성들의 회상과 증언을 강요한다. 그러한 동질성 확인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는 경우 대부분의 영상에서 출연자들의 장면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편집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북한에 대한 헤게모니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남한 중심적인 민족주의적 동질성의 논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동질성은 앞서 언급한 ‘민족’과 ‘통일’의 당위성으로 제시되며, 탈북 여성들의 회상과 증언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다름’은 단지 토크쇼의 상투적인 웃음 유발이나 분위기 환기를 위한 기능적 요소로만 작용할 뿐이다.

결국 <이만갑>은 탈북자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재현함에 있어 북한과 그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이해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의 재확인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만갑>은 이러한 공적 기억의 강화 및 재확인 과정 속에서 탈북 여성들의 기억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넘어 ‘민족’과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¹⁰⁾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논의: 사적 기억과 공적 기억의 사이에서

전술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이만갑>과 ‘기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기억 과 공적인 기억의 갈등이라는 대립적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만갑>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침묵되어온 탈북 여성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희망 등을 포함해서 그들이 경험해온

9) 이러한 구성은 자리 배치, 복장, 진행 패턴 등에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이 출연하여 그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꾸민 <미녀들의 수다>(KBS) 진행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만갑>의 사회자 또한 그 프로그램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였으며, 보조 사회자인 외국 여성은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경험이 있기도 하다.

10) 21회 인트로 멘트 사례 :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북한의 삶의 단편들을 회상과 증언이라는 고백적 형식을 통해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만갑>을 통해서 제시되는 탈북 여성들의 사적인 기억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유됨으로써 결국 대안적인 ‘대중 기억’ 형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만갑>은 탈북여성들의 구체적인 기억 내용을 공적 기억을 위한 특정한 범주 혹은 가치로 환원시킴으로써 그 기억들의 실천적 가능성을 침묵시킨다.

물론 공적 기억 또한 과거에 대한 회상의 일환으로서 기억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공적 기억은 그 주체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를 위한 지배 담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념’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관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적 기억은 기억의 유동적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객관성을 갖춘 ‘지식’ 체계의 일부가 되어 그 권위를 획득하고, 그 결과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기억으로 거듭남으로써 특별한 ‘역사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적 기억은 공적 기억과 대립되거나 망각되어야 할 기억으로 전락한다. <이만갑>은 탈북 여성들의 기억을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이만갑>은 탈북 여성들의 기억으로부터 그들의 주관적인 생생한 ‘경험’ 내용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억을 객관화하여 대상화함으로써 상투적인 불거리로 변질시킨다. 그리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러한 객관화는 ‘통일’, ‘민족’ 혹은 ‘국가’와 같은 개념을 동원하는 “일반적인 도식”내지는 “상투적인 인식 방식”(Burke, 2004, pp.114~115)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덧붙여,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출현과 보편화는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문자 및 인쇄매체와 같은 기존의 형식들을 해체시킴으로서 그간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던 ‘역사’라는 개념을 상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전진성, 2005, 10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갑>은 그 재현 방식에서 드러나듯이, 탈북 여성들의 기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일축한다. 결국 <이만갑>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연관하여 사적 기억, 공적 기억과 같은 다양한 기억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웃음과 눈물로 점철된 ‘고백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만갑>은 대중들에게 북한과 탈북 여성에 대한 특별한 이해 방식을 제공하며, 이는 그 여성들의 북한에 대한 사적인 경험의 회상과 그에 대한 증언 행위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이만갑>은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보이고 그러한 ‘다름’의 희생양으로서의 탈북 여성들을 타자화한다. 이러한 타자화를 위해 토크쇼 <이만갑>이 탈북 여성들의 기억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한 마디로 ‘선(先) 웃음’, ‘후(後) 눈물’이다. 그들의 기억은 한국과 북한과의 차이 혹은 다름에 대해서는 재미로서의 웃음을, 탈북 과정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으로서의 눈물을 유발한다. 이것이 <이만갑>이 북한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과 탈북 여성들에 대해 감정적인 이슈를 유도할 뿐이며, 그 기억들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이해를 방해할 뿐이다. 그리고 <이만갑>은 탈북 여성들을 집단 관음적 응시의 대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맥락에

서 그들의 기억을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가 아니라 북한을 ‘힐끗 엿볼 수’있는 기회로서 활용한다.

<이만갑>이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이 글의 도입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타블로이드화’된 텔레비전 문화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타블로이드 문화는 거칠게 평가한다면 우선 체계적이고 통합적 이기보다는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지함이나 엄숙함보다는 가벼움과 즐거움의 원칙을 지향함으로써 소위 ‘포퓰리즘적’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간혹, 타블로이드 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타블로이드 문화는 특유의 ‘카니발적(carnavalesque)’ 속성을 전면에 드러내 적극적으로 모더니즘이 추구해온 엘리트주의적 엄숙주의에 대해 저항한다는 것이다(Biressi & Nunn, 2008). 하지만, 어디까지가 쾌락주의적인지 또는 저항적인지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적어도 <이만갑>은 실제 북한에 대한 정치적 문제, 국제적 상황, 남북한 갈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 그리고 탈북 과정에 나타나는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단지 북한 사회와 탈북 여성을 대상화하는 등 가벼운 즐거움을 추구할 뿐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은 소수자이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양한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보면, <이만갑>과 같이 탈북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적 기억을 진술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된 ‘고백’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쇼는 사회자와 패널들이 함께 웃고, 울고, 흥분하는 가운데, 그리고 관련 영상 자료의 제시를 통해 자극적이고,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복수의 증언자들로 구성되는 <이만갑>의 고백쇼는 격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기억과 망각의 선택을 감시하거나 혹은 그러한 선택에 동조하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탈북 여성들의 북한에 대한 기억은 <이만갑>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에 의해 이해되며, <이만갑>은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장이 된다. 그리고 그 확인 절차는 탈북 여성들 스스로 <이만갑>이 택하고 있는 다양한 재현 규칙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웃음과 눈물의 주체가 되는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으로 탈북 여성들은 <이만갑>을 통해 북한 및 탈북 과정에 대한 그들의 사적인 기억을 토로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백은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적인 지배 기억을 강요하는 담론적 요인이 되어 북한에 대한 기존의 문화적 기억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만갑>에서 재현된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은 대중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저항적 속성을 발휘하는 수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푸코가 제시한 ‘대중 기억(popular memory)’은 “대중의 역사를 대안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려는 급진적인 역사 쓰기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황인성, 2001, 22쪽). 푸코의 논의를 따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들은 대중 기억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들이 미디어와 같은 재현 장치를 통해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이 권력에 대한 투쟁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경영하고, 그 기억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Foucault, 1975, pp.25~26). 하지만, <이만갑>은 대중에게 단지 탈북 여성의 기억을 통해 북한을 지배 담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해줄 뿐이다. <이만갑>은 회상과 증언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적 기억을 다시금 공적 기억내로 병합하며 웃음과 눈물의 서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진지한 기억을 희미하게 만드는 ‘기억의 타’일 뿐이다.

Ⅰ 참고문헌

- 권기숙 (2006). 『기억의 정치: 대항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 김수정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7~44.
- 김용숙 (2004). 증언과 고백의 세계: 텔레비전의 사사회와 치료 윤리. 『언론과학연구』, 제4권 2호, 5~34.
- 김학이 (2005).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 연구』, 제33집, 227~258.
- 윤미애 (2002). 매체와 문화적 기억. 『독일어문화권연구』, Vol. 11, 38~62.
- 윤태림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경숙·조경진 (2010). 오락 프로그램에 차용된 리얼리티와 경계의 조합: <서바이버>와 <무한도전> 비교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89~117.
- 이기형 (2010). 영상미디어와 역사의 재현 그리고 ‘기억의 정치학’: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 기념 텔레비전 역사다큐멘터리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2권 1호, 57~90.
- 이용재 (2004). 피에르 노라와 ‘기억의 터전’-프랑스 국민정체성의 역사 다시 쓰기. 『역사비평』, 봄호 통권 66호, 324~342.
- 이종수 (2008). 오디션 리얼리티쇼와 현대 여성의 ‘통과의례’: <도전! 슈퍼모델>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9권, 51~86.
-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 『언론과 사회』, 19호, 2~48.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 주창운 (2010). ‘현재적’ 죽음과 ‘역사적’ 죽음으로 기억하기. 『방송문화연구』, 제22권 1호, 91~117.
- 최인자 (2003). 한국 TV 토크쇼의 서사 담화 패턴과 그 문화적 기능. 『이중언어학』, 제22호.
- 태지호 (2012). 텔레비전 다큐멘터를 통한 사회적 기억 제도로서의 영상 재현에 관한 연구: <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KBS)에 나타난 1945년 8월 15일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6-4호, 431~471.
- 하효숙·김균 (2010). 텔레비전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변화: KBS 한국전쟁 기념 다큐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2권 1호, 31~56.
- 황인성 (2001). Popular Memory 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적인 전망에 관한 논의. 『언론문화연구』, Vol. 17, 21~40.
- 황인성 (2004). 영화와 텔레비전의 소수집단 현실 구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나쁜 영화>와 <뉴스 추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23호, 491~515.
- 황인성·강승목 (2008). 영화 <꽃잎>과 <화려한 휴가>의 영상 재현과 대중의 기억(Popular Memory)이 구성하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35호, 43~76.
- Ankersmit, F. R. (2006). The three levels of “Sinnbildung” in historical writing. In J. Rüsen (Ed.), *Meaning and representation in history*. (pp. 108~122). New York: Berghahn Books.
- Assmann, A. (1999). *Erinnerungsräume*. 변학수 외 역 (2003).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Assmann, A. (2009).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4th ed.). 변학수·채연숙 옮김 (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 Assmann, J.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 Bal, M. (1999). *Acts of memory: Cultural recall in the present*. Hanover, NH: Dartmouth College: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Biressi, A., & Nunn, H. (Eds.) (2008). *The tabloid culture reader*. Berkshire,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Blight, D. W. (2009). The memory boom: Why and why now?. In P. Boyer (Ed.), *Memory in mind and culture*. (pp. 238~25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öhme, H. Matussek, P. & Mueller, L.(eds.). (2000). *Orientierung kulturwissenschaft*. 손동현 역 (2004).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Burke, P. (2004). *What is cultural history?* 조한욱 역(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 Carr, D. (1986). *Time, narrative, and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handler, D. (2002). *Semiotics for beginners*. 강인규 역 (2006). 『미디어 기호학』. 서울: 소명출판.
- Connerton, P. (1990).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bitt, G. (2007). *History and mem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Edensor, T. (2002).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박성일 역 (2008).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서울: 도서출판 이후.
- Erl, A. (2008). Literature, film, and the mediality of cultural memory. In A. Erl & A. Nünning(Eds.).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pp. 389~398). New York: Walter de Gruyter.
- Fiske, J.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Methuen.
- Foucault, M. (1975).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Vol.5. No.11*, 24~29.
- Halbwachs, M. (1992). *La topographie légendaire des évangiles en terre sainte: Etude de mémoire collective;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Coser, L. A. (Tran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41, 1952).
- Hall, S. (1996).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Hutton, P. H. (1993). *History as an art of memory*.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Kramer, L. S. (1989). Literature, criticism and historical imagination. In L. Hunt (Ed.), *The new cultural history*. (pp. 73~9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vingston, S., & Lunt, P. (1994). *Talk on television: Audience participation and public debate*. 김응숙 역 (2000). 『텔레비전과 공중』.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otman, Y. M. (1990).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유제천 역 (1998). 『문화기호학』. 서울: 문예출판사.
- Munson, W. (1993). *All talk: The talkshow in media cul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Nora, P. (ed.). (1984). *Les lieux de memoir*. Goldhammer, A. (Trans.). (1996). *Realms of mem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ora, P.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No. 26(Spring)*, Special Issue: Memory and Counter-Memory, 7~24.
- Olick, J. K. (2007). *The politics of regret*. 강경이 역 (2011).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 Robins, T. (1995). *Remembering the future: the cultural study of memory*.
- Shattuc, J. M. (1997). *The talking cure: TV talk shows and women*. NY: Routledge.
- Suleiman, S. R. (2006). *Crises of memory and the Second World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hornborrow, J. (1997). Having their say: The function of stories in talk-show discourse. *Text, 17(2)*, 241~262.
- Thwaites, T., Davis, L., & Mules, W. (1994). *Tools for cultural studies*. South Melbourne: MacMillan.
- Turner, G. (2010). *Ordinary people and the media: The demotic turn*. London: Sage.
- Vansina, J. (1980). Memory and oral tradition. In J. Miller, *The African past speak* (pp. 262~279). Folkestone,

Kent: William Dawson.

Webster, R. (1990). *Studying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Edward Arnold.

White, H. (1979).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천형균 역 (1991).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메타역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White, H. (1981).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 J. T. (Ed.), *On narrative* (pp. 1~24). London: Edward Arnold.

위키백과 2012년 10월 (<http://ko.wikipedia.org/wiki/%ED%83%88%EB%B6%81%EC%9E%90>)

(투고일자: 2012. 8. 31, 수정일자: 2012. 10. 24, 게재확정일자: 2012. 10. 28)

ABSTRACT

How Does Television Talk Show, <Now, I'm Coming to Meet You> (Channel A) Reconstruc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Personal Memories?

Ji-Ho Tae* · In-Sung W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memories of their past lives are represented in Korean television talk show, <Now, I'm Coming to Meet You>(Channel A, 2011~) and its social implications. In order to carry out this task,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memory' in its relations with 'collective memory', 'cultural memory' and 'history', and its social appropriation in media such as television. And, the ideological aspects of the recent trend of television talk show that deals with people's private memories were also discussed. The study used the method of structural narrative analysis.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of all,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memories in <Now, I'm Coming to Meet You> collide with the dominant public memories in South Korea. In any case, it has been found that the show tended to make North Korea and their defectors as exotic 'others' and thereby reinforce the existing public memory. After all,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defectors' memories in the talk show only results in stressing the melodramatic narrative emotionally packaged with 'laughing' and 'crying' without any sincere consideration of them.

Keywords: Private Memory, Public Memory, Collective Memory, Cultural Memory, History, Sites of Memory, Television Talk Show, North Korean Defector

* Dept. of Culture Planning, Hoseo University
** College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